민주화운동공제회 결성 본격화, 발기인대회 개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밝은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칭)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장 유영표, 이하 공제회)의 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열린 기금모금특별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발기인대회가 이 달 9일(목) 오후 4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제회는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한 동지들이 한데 어울리는 마당을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한 상부상조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여 미래의 밝은 생활공동체를 구현' 하고자 결성이 추진 중이다.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될 공제회는 1960~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분들과 그들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분하면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노동자·농민, 시민사회운동, 정치·법조·교육·문화예술·종교·보건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회원들의 복지생활공동체를 넘어서 명실 공히 한국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이 한데 어울리는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의 후원회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명진 스님, 박형규 목사, 신경림 시인, 이돈명 변호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한승헌 변호사,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기인으로 후원회 외에 11월 20일 현재 각계각층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기인대회까지는 2,0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제회는 발기인대회에 이어 2005년 1월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랑과 전투의 시인 김남주' 전

지난 달 24일(수)부터 사업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 주최로 '사랑과 전투의 시인 김남주' 전이 사업회 1층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김남주 10주기를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이 달 8일(수)까지 계속되며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쓴 편지글 원본과 시·번역시 초고·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당시의 글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담뱃갑 은박지에 썼다는 유명한 시 원본도 함께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목포 MBC에서 제작한 김남주 시인의 다큐멘터리도 상영되며 작가 홍선웅의 『다리』지 연재 시, 판화, 화첩 등 20여 명의 참여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도 볼만 하다.

12월의 열사 추모일

5일 박응수(1987)
6일 김병곤(1990), 권미경(1991)
11일 이재식(1987)
12일 조영래(1991)
14일 장현구(1995)
15일 조수원(1995)